

지역 소식통

고창군, 제설작업 총력전

전북 고창군이 지난 20일부터 고창지역에 폭설이 이어짐에 따라 즉각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전 직원이 눈 치우기에 나서는 등 제설작업에 총력전을 전개했다.

고창지역은 21일 오전 8시 현재 평균 19.4cm(무장면 최대 23.7cm) 적설량을 보이고 있으며, 전날(20일) 오후 6시부터 대설경보가 발효 중이다.

고창군은 즉각 재난안전대책 본부를 가동하고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도로제설 및 상황관리를 위해 46명을 투입하고 열화갈승 등 제설제 250t, 덤프·모래살포기·그레이더 등 장비 37대를 동원해 주요 도로 및 경사로, 교량, 결빙지역 등 34개 노선 327km 구간의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더불어 보행자 안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날이 갠 오전부터 군청 공직자들을 투입해 도심지 취약지역에 대한 제설작업을 실시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적극행정 국민신청 우수기관 시상

정읍시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육아수당의 성과를 인정 받아 '적극행정 국민신청 우수기관상'을 수상했다.

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적극행정국민신청 우수사례'에 선정돼 전북도에서 유일하게 우수기관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시는 가정양육 지원 강화를 위해 59개월 이하 아들에게 매달 10만원의 '육아수당'을 지원해 부모의 육아 부담을 함께 나누며 아동 복지에 힘쓰고 있다. 특히 가정방문, 현지 확인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행정에 노력하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아이 키우기 좋은 정읍시'를 목표로 시행 중인 육아수당을 토대로 시민이 육아하기에 좀 더 나은 환경을 만들고,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더 큰 도약, 더 좋은 고창'

심덕섭 군수, 삼성전자 투자유치 등 올 한해 성과 발표... 내년 군정계획도

심덕섭 고창군수가 21일 오전 군청 종합상황실에서 연말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 한해 성과와 내년 군정계획을 발표했다.

심덕섭 군수는 "세계유산도시 고창 방문의해를 대성공으로 마무리하며 1천만 관광객을 열고, 전라북도 최초로 삼성전자의 최첨단 물류센터와 드론통합지원센터 유치에 성공하며 지역의 미래 먹거리 기반을 확보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한해를 돌아봤다. 이외에도 국내최초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의 보물 7개 보유, 총 사업비 500억원 규모의 농촌협약과 100억원 규모의 농촌관광 스타미를 공모 선정 등 농·어촌 전체가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는 여건도 확보했다.

고창군의 2024년 핵심 슬로건은 '더 큰 도약, 더 좋은 고창'이다.

심덕섭 군수는 "고창군은 남보다 큰 보폭으로 빠르게, 특별하게, 만족스럽게 움직이며 도시 전체의 비약적인 도약(퀀텀리프, Quantum leap)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2024년 고창군 3대 핵심사업은 △전략사업 본격화(삼성전자 입주, 터미널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사업 착공, 용평리조트 종합테마파크조성 등) △세계유산도시 관광명소화(세계의 보물 7개 관광코스 도입 등) △군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생활여건 개선(외국인 근로자들이 일하기에 가장 좋은



심덕섭 고창군수가 21일 오전 군청 종합상황실에서 연말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 한해 성과와 내년 군정계획을 발표했다.

도시)이다. 고창이 가진 문화·역사·예술·관광 등 매력 자산을 활용해 산업화하고, 강한 경제를 바탕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이 모이는 도시로 만들어 가겠다는 복안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내년은 고창군

의 향후 100년을 내다보는 큰 그림을 그리는 한 해로 만들겠다"며 "새해가 고창군의 대도약을 실현하는 변곡점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시민불편 최소화' 발 빠른 제설작업 나서

소금 등 제설 자재 사전확보 전 직원 담당구역 제설 실시

정읍시가 지난 20일부터 내린 폭설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발 빠른 제설작업에 나섰다.

시는 지난 20일 오후 12시 10분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2단계를 발령하고 적설량에 따른 신속한 대응조치를 위한 비상대기 체제를 유지해왔다.

21일 오전 7시 기준 적설량은 덕천면 23cm, 고부면 22.7cm, 이평면 21.4cm, 영원면 21.1cm, 정읍시내 21cm, 북면 20.1cm 등 평균 16.24cm를 기록했다.

이번 폭설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시는 도로 정체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도로 제설을 실시했다.

특히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1일 오전 이학수 정읍시장과 시청 전 직원들이 담당구역 제설작업을 하고 있다.

시청과 읍면동 직원들이 나서 담당구역 제설을 실시했다. 이학수 시장도 새안로 주변을 제설하며 힘을 보탰다.

앞서 시는 지역 내 63개 노선 408km 구간의 원활한 교통이 이뤄지도록 모래살포기를 장착한 15톤 덤프 12대 등 제설장비와 열화갈승 950톤, 소금

1860톤, 모래 5만개 등 제설자재를 사전 확보했다.

제설 취약지구인 철보 구절재와 내장 방산재, 신태인을 등에는 제설 전 지기지를 지정해 염수 저장탱크에 염수 용액을 배치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조상땅찾기 무료 서비스

2023년도 1820필지 토지정보 제공... 온라인 신청 가능

부안군은 2023년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통해 1,820필지의 토지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조상 소유의 토지를 모를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된 전국 토지 소유현황을 전산 조회해 찾아주는 무료 행정서비스로 본인의 땅을 찾으려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부안군은 올해 625건의 신청을 받아 1820필지 약 200만㎡의 토지정보를 제공했다.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토지 위치와

관계없이 전국 시·도 및 시·군·구청 지적 관련 부서 방문이나 온라인(kgeop.go.kr)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의 경우 신분증, 대리인은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사망자의 상속인인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하면 된다.

김호승 민원과장은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통해 전국에 있는 조상의 토지를 간편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정읍시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3년 전국 농기계임대사업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농촌경제연구원 장관표창을 받았다.

농림부는 전국 142개 시·군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대상으로 지난 1년간 농기계 임대실적과 전담 인력 현황, 정책 참여와 개선 노력, 사업의 지속성 등의 항목을 평가했다.

시 농기계임대사업소는 농업기계 임대사업 평가에서 최근 5년(2018~2022)동안 '매우 우수' 등급의 결과를 받았다. 특히 농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토요일 근무, 소형건설기계 면허취득 교육 등을 지원해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와 함께 서부권역(고부, 영원, 이평, 덕천면) 농업인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난 6월 서부 농기계임대사업소를 개소해 농업인들의 경영비 절감과 노동력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국·도비 1억9000만원을 확보, 사업비는 영농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용 농기계를 구비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다.

이주연 농촌지원과장은 "앞으로도 효율적인 농기계임대사업 추진과 신규 농기계 및 노후 농기계 대체를 통해 농업인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서 '최우수'

정읍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평가하는 2023년 규제혁신 추진 실적 성과평가에서 기초지자체 부문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에 따라 시는 4억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하고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받았다.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는 전국 광역·기초지자체의 지방규제혁신회의 참여와 기여도, 지방규제혁신 TF 운영실적과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노력, 중앙규제 개선 노력 등 규제혁신의 종합적인 분야를 평가해 우수지자체를 선정한다. 시는 지난해에는 우수지자체에 선정됐고, 올해는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지방규제혁신 전반에 두루 노력하고 있음을 입증했다.

시는 올 한 해 동안 중앙규제 건의과제와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규제 개선과제를 적극 발굴해왔다. 이 중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 주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 사항이 규제 건의 과제로 중앙부처에 수용됐고, '통합위임장'으로 지적측량, 토지분할허가, 토지 이동정리까지 처리하도록 건의한 '통합위임장 공동활용'으로 토지민원 처리 간소화가 적극 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돼 전국 지자체로 확산하는 성과를 얻었다.

이와 함께 지방물 이설 시 법률 상 근거 없이 부가처세를 청구해 온 한국전력공사와 KT 등으로부터 과오 납입금을 환수하고 추후 예산 낭비를 예방할 수 있는 '한전주 등 지방물 이설 부가가치세 과오납금 환수 추진'은 신규사례로 선정되는 등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업과 시민이 체감하는 생활 불편 규제 개선을 적극 추진했다. 이학수 시장은 "규제혁신을 지역 경제 살리기와 주민생활 안정에도 도움이 되는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모든 공직자가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